

우현 고유섭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성황

선구자의 큰 그늘에 '경의'

한국미술사학회 주최, 학계원로 등 300여명 "본받자" 다짐

"탑과의 모국인 인도에 요만한 탑이 있느냐? 탑과의 경신국(更新國)인 중화에 요만한 탑이 있느냐? 실로 너무나 탑신(塔身)적 기교다. 당장(唐匠)의 성업(盛業)이라 말하되 나는 부(否)라 한다.(...) 당대 탑과의 어느 것에서 이 수법의 일단을 찾아 내려느냐? 나는 오직 백제의 혼이 이 탑에 남아있나 하노라." 다묘를 바라보는 고유섭 선생의 시선에는 탁월한 예술미에 대한 경탄과 민족적 자긍심이 가득하다.



선생의 수제자인 황수영 전 동국대 총장, 진홍섭 전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해 강경숙 전 충북대 교수, 서울대 안희준 교수, 윤용이 명지대 교수, 김리나 홍익대 교수 등 후학들이 참석했다.

선생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한 뜻 깊은 행사가 한국미술사학회(회장 홍선표) 주최로 열렸다. '우현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그것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우택 동국대 교수가 '고유섭과 불교미술'을 박경식 단국대 교수가 '고유섭과 탑과연구'를 발표하는 등 고유섭 선생의 불교문화에 대한 연구업적과 한국미술사에 미친 영향이 비중있게 논의됐다. 정우택 교수는 "고유섭 선생은 불교 수용이 한국 문화의 정체성

에 큰 역할을 했음을 지적했다"고 전제한 뒤 "개별작품 고찰 뿐 아니라 제작의 근본을 이루는 불교의 교리적 배경과 영향, 그리고 교리에 따른 도상과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데 큰 의의를 부여했다. 도상학적 탐구를 통한 예술적 가치 규명과 신앙적 가치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정 교수는 선생의 한국미술사 시기 구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조각예술은 시종 불교와 더불어 성취를 같이 했다"

● 우현 고유섭은? 미술사 '학문화'의 주역

1925년 서울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철학과에서 미학과 미술사를 전공했다. 1933년 3월 개성부립박물관 관장으로 부임해 십여 년간 한국미술사 연구에 주력하면서 전국의 석탑을 양식론에 입각해 체계화했다. 이 같은 업적으로 우리 미술사를 처음으로 학문화한 학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한국미술사급미학론> <조선화론집성(朝鮮畵論集成)> <한국미술문화사(韓國美術文化史)> 등의 저서와 60여 편의 논문이 있다.



고 봤던 선생은 불교조각을 중심으로 삼국·통일신라의 미술사적 시기구분을 시도했다는 것. 정 교수는 "선생의 시대구분은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경식 교수는 고유섭 선생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라 일컬어지는 '탑과연구'를 조명했다.

"탑과연구는 문화의 암흑기였던 1930년대에 이뤄진 것으로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탄신 100주기를 맞아 선생의 학문세계는 민족주의적인 운동 차원에서 규명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6>

반사와 '신심명' 한 구절

우주에서는 빛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빛이 있는지 아는 것은 빛이 어떤 물체에 반사돼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비행기를 타고 고공으로 올라가면 하늘이 점점 검어지는 것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하늘이 파란 것은 공기에 있는 분자들이 파란 색을 반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리고 저녁녘이 아름다운 붉은 빛을 띠는 것은 태양의 빛의 각도가 공기 분자에 반사해서 붉은 빛만 우리에게 반사되는 이유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공기 분자 하나도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이 서로 연관을 맺으며,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의존성이 있다는 말이다. '나'라는 것이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사물을 매개로 해서 드러나는 경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눈, 코, 귀, 혀, 피부 그리고 뜻으로 느끼는 대상은 결코 그 대상 자체라기보다는 반사한 모습일 뿐이다. 이것이 반사가 가르쳐 주는 과학의 원리이다.

한 예로 '우리는 결코 책상의 모습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책상을 보기 위해서 빛을 책상에 비추면, 책상의 표면의 원자는 빛에 의해서 변화하면서 표면의 성질에 의해서 또 다른 빛을 내 놓게 되는 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책상의 모습이다. 따라서 우

세상살이의 번거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번거로움 느끼는 '나' 조차 실체가 없는데...

금강산에서 살아있는 금강산을 느끼지 못하듯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쓴 책에서는 항상 어딘지 허망한 구석을 느낀다. 깨달은 스승을 찾아서 수천 리를 마다하지 않은 구도자의 행적은 바로 이 생생한 진리를 느끼기 위해서이다.

리는 책상을 본다기보다 책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양자물리학 자양자 역학의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자에게 진리에 대해서 물론, 과학자는 변화가 진리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자주 책상을 책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책상의 변화를 지각할 뿐이라는 것이 현대 과학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신심명>을 접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탑대사의 법으로 증손자될 되는 분인 3대 조사 승찬 스님이 쓴 글이다. 신심명이라는 말 그대로 믿는 마음의 글이란 뜻이다. 다르게 해석하면 마음이 부처임을 믿는 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팔만대장경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다 들어있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글이다. 이 <신심명>에 '능수경명(能隨境滅) 경축능침(境逐能泯)'이란 글이 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서강대 종교학과 부임 서명원 신부

"성철 스님을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또 한국인에게 한국불교를 가르치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강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성철 스님 연구... '선의 입문' 강의

캐나다 태생으로 프랑스에서 가톨릭에서 사제로 임하고, 파리7

대학에서 성철사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명원 신부(Bernard Senecal)가 2005년 3월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서 교수의 일생(一生)을 들으니 이런 게 인연이구나 싶다.

그의 박사 논문 제목은 '퇴옹 성철의 생애 및 전서'. 성철 스님의 저술 전반을 훑으며 스님의 사상을 조명했다. 1400쪽이나 되는 논문인데 이해를 돕기 위한 500여 쪽짜리 사전까지 편찬했다. 서 교수의 논문은 성철 사상 주제로는 프랑스 내 최

'불교학'으로 강단 서고 박사학위 받은 신부님들

조이고, 한국불교 관련해서는 두 번째 박사 논문이다. '선의 입문' '종교불교철학' 등을 이번 학기 강의하는 서 교수는 "강의를 통해 교수와 학생으로서 만나는 건 소중한 인연이다"며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철 스님 연구를 위해 수행도 열심히 했던 서 교수는 대학원 강의에서는 수업 시간의 1/3을 참선 수행에 할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육관 4층에 공간도 물색해 놓았다.

서 교수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제 삶이 바뀌고, 신앙심 또한 더욱 중요워졌다"며 "그런 맥락에서 불교와 가톨릭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함께 진리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불교의 자비나 그리스도교의 아가페나 우리말로 번역하면 볼 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인간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불교와 그리스도교도 궁극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화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가톨릭 사제로는 처음



자비와 아가페 다각적으로 비교

월 18일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광상훈(토마스 데 아퀴나스) 신부. 자비와 아가페, 그리고 종교간 대화는 꼭 신부에게 화두와도 같은 것이었다.

가톨릭대 성신캠퍼스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1992년 사제서품을 받은 광 신부는 동국대 불교학과 3학년에서 편입해 석·박사 과정을 차례로 밟았다. 신학교 입학 전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아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동양사상연구

동국대서 박사학위 받은 광상훈 신부

회관 동아리 활동도 했지만 종교인으로서 불교를 전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가톨릭 신앙을 갖고 불교를 학문적으로 대하다보니 불교의 심성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광 신부는 지도교수인

수인 해주 스님(동국대 교수)과 환경 감독을 함께 하고 방학에는 사찰 수련회를 통해 예불과 참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불교를 더 깊이 노력했다.

논문은 불교의 핵심윤리인 자비와 그리스도교의 아가페를 △자리와 이타 △지혜와 자비 △정의와 자비라는 관점에서 비교했다. 광 신부는 "불교와 가톨릭 사이의 대화 속에서 양 종교간의 전통에 담긴 지혜와 사랑의 정신을 잘 알아내면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이것이 명품이다!

연풍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자사 직영 농장인 포천, 영월, 홍성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산 토종오가피와 경희대 한방연구소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원료를 ISO 9001 품질인증과 식품위생요소중성 관리기준 HACCP에서 인증 받은 초현대식 시설로 원료에서 제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통시스템을 갖춘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민 책자와 비디오에 담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리보세요.

토종 오가피

나무 산삼으로 일컬어지는 국내산 토종오가피와 최고의 산삼인 천종 산삼 원근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으로 탄생한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주연풍F&B
HYUN PUNG F&B CO., LTD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 짜 내 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력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짜 내 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 천축, 연축 인체지명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